



주간 통일정세

2007-1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경제건설 선전선동 강화(11/27, 노동신문)

- 북한 당국은 “오늘 우리 조국(북한)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온 누리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으며, “강성대국, 이것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일심단결이 있고 강한 군력을 갖춘 데다 이제 경제만 추켜(일으켜)세우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함으로써 전 주민들의 경제건설 활동 참여를 독려

● 외국대학 교재 번역 개작된 새 농업기술교재 교과서 도입(11/29, 조선신보)

- 농업과학원이 최근 평양농업대학과 학(學), 연(研)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학원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농업대학들의 기술교육교재들을 일식으로 들여다 조선의 실정에 맞게 번역 개작해 교과서로 출판”하여 새 교과서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힘.

● 전력 절약 및 증산을 강조(12/1, 조선중앙TV)

- “모두 다 전력증산과 전기절약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하면서 “모든 발전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해 적은 연료와 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것을 강조

● 농촌에 주택단지 신축 증가 소개(11/29, 조선중앙방송)

- 올해 11월 중, 농촌지역 새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배로 늘어났으며 평양에서는 형제산구역과 역포구역, 상원군에 주택 1천 164채가 신설돼 1천 189가구가 새 집에 거주

나.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시찰(1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1159군부대와 ‘오중흙7연대 칭호’를 받은 제169군부대 발전소 발전소를 시찰
- 수행인물은 보도되지 않았음.

다. 정치관련

● 노동당 전국지식인대회 개최(11/30,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노동당 주최 전국지식인대회가 30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



- 1992년에 이어 15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부문 지식인들이 참가해 “과학과 기술의 새 시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 세우는 데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 나갈 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고 강조
- 개막식 참가자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당 비서국 비서,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중앙위 부위원장 등 주요 간부
- 김화요 단장이 이끄는 재일본 조선지식인 대표단도 참가

라. 기타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전개 내용 소개(11/28, 조선중앙통신)**
 -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모든 치료기관에서는 연간 접종 계획에 따라 학령 전 어린이들에게 각종 예방주사를 놓아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의 시력, 호흡기 계통 등의 면역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의료활동이 진행됐다”고 소개됨.
- **평양서 노인성질환 의료강습 실시(12/2, 조선신보 인터넷판)**
 - 평양에서 지난달 22~28일 양로원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강습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강습은 지난 2005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힘.
 - 북한의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강습에는 각 지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20여 명이 참석
- **中 ‘동북공정’에 대한 북 고고학자의 간접 비판 소개(11/29, 조선신보)**
 - ‘평양 고구려의 유적을 찾아서’라는 조선신보 기획물의 첫 편 기사에서 북한 대성산문화유적관리소 리정남 학술연구원이 “일부 나라들에서는 5세기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역사유적들을 무시하고 옛날 고구려의 수도는 집안이였다고 하면서, 당시 고구려왕들은 다 중국 황제가 임명하여 보냈고 그들의 무덤이 집안에 있다고 떠들고 있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간접 비판이 소개됨.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미국의 테러방지 감시망에 대한 인권유린 비난(1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를 “세계 최대의 도청, 감시



사회”로 만들어 일반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팰콘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11/28, 노동신문)
 - 미국이 전 세계 어디든 2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팰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 등의 핵공격을 방어한다는 미명 아래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임을 강조
- 반복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다며 대미비난(11/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막된 27일 “미제 침략군 호전광들이 비행대와 핵동력 유도탄 잠수함을 남조선(남한)에 끌어들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

나. 북·일 관계

- 일본의 과거청산 필요성 강조(11/27, 노동신문)
 - “일본은 과거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은 일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함으로써 과거 청산을 통한 북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힘
- 일본의 ‘비핵3원칙’에 대한 비난(11/27, 노동신문)
 - 핵무기를 실은 미군 선박이 일본 영해를 통과하도록 허용했던 미·일간 밀약이 최근 공개되면서 일본이 겉으로는 1967년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핵전쟁 도발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

다. 북·중 관계

- 북·중 ‘2008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2/2,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이 11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2008년 체육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
 - 북한의 문재덕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중국 류핑(劉鵬) 국가체육총국장이 의정서에 조인
- ‘꽃파는 처녀’ 북한 가극 내년 중국국가극원에서 상연(11/27, 연합뉴스;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 북한의 5대 혁명가극으로 꼽히는 ‘꽃파는 처녀’가 내년 중국의 국립대극장인 국가극원 무대에서 상영, 류샤오밍(劉曉明) 평양 주재 중국 대사는 26일 김일성종합대학 강연에서 ‘꽃파는 처녀’가 내년 국가대극원에서 공연될 계획이라고 소개
 - 류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꽃파는 처녀’의 중국 공연을 양국 문화교류



의 새로운 발전으로 평가하고 공연의 성공을 미리 축하한다고 언급했으며, 북한의 가극 ‘꽃파는 처녀’가 중국에서 공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라. 기타 외교 관계

● FAO와 협력 더욱 강화 천명(11/29, 조선중앙통신)

- 11월 2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제 34차 회의에서 FAO와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 노무현 대통령 면담 보도(12/1, 조선중앙통신)

-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11월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다”고 보도

● 제9차 적십자회담 합의 보도(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면서 합의서 내용을 간략히 보도

나. 남북교류

● 북, 국방회답서 서해 12해리 영해기선 주장(12/2, 연합)

- 북한이 11월 27~2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 ‘12해리 영해기선’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

● 남북 군사공동위 운영 합의(11/29, 연합)

- 남북은 29일 오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 회의를 열어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 발표
- 남북은 향후 공동어로구역 설치 관련,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논의하며 새 해상불가침경계선(NLL 재설정)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함께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내년 중 서울에서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
- 문산~봉동 간 열차 화물수송,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直航)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등 남북 간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취하는 데도 합의



- 제9차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11/29, 연합)
 - 남북은 제9차 적십자회담 이틀째인 29일 이산가족 대면상봉 행사를 정례화하는 데 의견을 접근
- 개성-평양 도로개보수 현지조사 12월 11일 개시(11/29, 연합)
 - 남북은 28일부터 이틀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열어 제1차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 北, 안변 조선단지 위해 원산항·공항 제공(11/26, 연합)
 - 북한 당국은 안변의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해 안변 인근인 원산의 공항과 항만을 제공하고, 조선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현재 완공 단계인 원산청년발전소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중, “6자회담 일정 미정”
 - 중국 외교부는 12월 6~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1/27).
- 불능화 실사단, 방북(11/27~29)
 - 한·미·일·중 등 6자회담 참가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실사단이 방북했음.
 -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한국 원자력기술 전문가 1명이 포함된 10여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했음.
 - 실사단 미국측 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모든 과정이 12월 31일까지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혔음



(11/29).

- 그러나 실사단은 핵프로그램 신고목록을 아직 받지 못했으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번 영변 핵시설 현장방문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나. 미·북 관계

● 힐 차관보, 일·남·북·중 순방(11/28~12/5)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6자회담 관련 협의를 위해 도쿄(11/28~29), 서울(11/29~12/3), 평양(12/3~5), 베이징(12/5 이후)을 순방함.
- 그는 12월 말로 시한이 다가온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다음 단계 진전방안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함.
- 북한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리들과 회담하고 북한 측이 제시할 핵 신고가 확산 활동이나 우라늄, 핵무기를 포함, 북한 핵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이 담긴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북측에 강조할 예정임.

● 미, 북 원심분리기 시리아 등 3국 이전 우려

- 「워싱턴타임스」는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은 파키스탄이 지난 1990년대 북한에 판매한 원심분리기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이들이 제3국, 특히 시리아로 수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11/30)했음.
- 또한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는 미국내 강경파들에게 큰 관심사로 북한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상황은 꼬이게 될 것이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한 군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신고서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면 테러지원국 해제는 어렵고 6자 외교장관회담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AP통신, 북핵 협상 두 장애물 보도(12/1)

- 미국의 AP통신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전혀 없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장애물이 수 년 동안의 민감한 협상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의혹과 북한이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거론했음.

● 북, 알루미늄관 로켓탄 제조에 사용 주장

- 북한은 올해 들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러시아에서



입수했다고 인정했음.

- 그러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이 이를 핵개발이 아닌 로켓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워싱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12/1)했음.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미국은 이런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북한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방침임.

●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3개 추가조건 요구

-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의 일부로서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더해 핵계획 신고시, ① 핵폭탄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량, ② 우라늄 농축계획 실태, ③ 시리아 등 외국으로의 핵이전 상황 등 3가지를 명시할 것을 북한에 요구키로 했다고 6자회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12/1)했음.
- 이 신문은 북한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가 대폭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음.

다. 중·북 관계

● 중, 작년 대북 수출 증가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미 의회에 보고한 ‘중국 경제실태’(China’s Economic Condition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총 12억3,190만 달러로 2005년의 10억8,470만 달러에 비해 13.6% 증가했음.
-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석유 등 광물 에너지 자원, 돼지고기 등 육류, TV 등 전자제품, 기계류, 플라스틱류 등의 순이었음.
- 반면 중국은 작년 1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4억6,770만 달러의 물품을 수입, 2005년의 4억9,650만 달러보다 수입액이 5.8% 감소했음.
-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물품은 광석·석탄 등 광물 에너지 자원, 섬유류, 어류 및 수산물, 철강 등이었음.

● 주북한 중국대사, 김일성 종합대에서 연설(11/26)

- 류샤오밍(劉曉明) 평양주재 중국대사는 김일성 종합대학 강당에 모인 200여명의 학생과 교수를 앞에 놓고 “미래지향적 중·조(中朝)관계는 시대가 우리에게 준 영광스런 사명이다”라고 밝혔다.
- 그는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협력의 심도가 깊어지고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은 역사적인 발전기회를 맞고 있다”고 소개했음.
- 또한 “현재 남북화해협력은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으며, 북·미관계 개선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남북화해를 지지하며,



조선이 미국 등 서방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양호한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류 대사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공동 목표라고 역설했음.

● **중국인, 올해 3만 명 라진·선봉 관광**

- 중국이 북한의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교통문예방송」은 “북한의 장철수 국가관광총국 부국장이 지난 26일 지린성 훈춘시를 방문해 관광업 실태를 둘러봤다”고 보도(11/28)했음.
- 북한 국가관광총국에서 할당된 쿼터에 의해 올해에는 지난 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3만 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훈춘시를 거쳐 라진·선봉을 방문했음.

● **중·북, 해산 동광 공동개발 착수**

- 중국의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중국 완상(萬向)그룹의 자회사인 「중광귀지」(中廣國際)와 북한 채취공업성 산하 기업인 「해산청년동광」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중광업합영회사」가 최근 평양에서 개업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고 보도(11/28)했음.
- 구리 매장량 42만t에 하루 개채량이 2천t에 달하는 해산동광은 북한의 대표적 대외 합작경영 프로젝트이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음.

라. 대만·북 관계

● **대만, 북에 정밀공작기계 수출 상사 적발**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대만 수사당국이 핵무기 관련 물질도 제조 가능한 정밀공작기계를 북한에 수출한 대만의 「이정(怡正)실업공사」를 무역법 위반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11/27)했음.
-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생물화학병기의 제조가 가능한 복수의 정밀공작기계를 북한의 군관련 기업에 부정 수출한 혐의임.
- 대만은 유엔의 비회원국이나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 이러한 기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만 당국은 금년 3월 총탄의 제조가 가능한 정밀공작 기계를 부정 수출한 「타이중의 상사」를 적발한 데 이어 8월에는 미사일 부품 등에 전용 가능한 일본의 컴퓨터 등을 북한 국영기업에 수출한 타이베이의 상사를 적발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일본 관계

● 일·베트남, 북한에 핵포기 촉구(11/27)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응웬 밉 쩌엣 베트남 주석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 미얀마 사태 등 역내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후쿠다 총리는 특히 쩌엣 주석에게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일간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일, 대량살상무기 운송선박 단속법 추진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현장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보도(11/28)했음.
- 일본 정부는 법안 제정을 통해 미국 등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실효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나. 러시아 관계

● 연방하원, 총선실시(12/2)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가두마(연방하원) 총선이 실시됐음.
- 사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선 「통합러시아당」이 총의석 450석 가운데 최소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산당이 12%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다. 미·중 관계

● 미·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11/26)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6자회담과 양자 현안, 이란, 대만, 중동 문제 등을 논의했음.

라. 중·일 관계

● 최초의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12/1)

- 사상 최초의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가 베이징에서 ‘협력 공동승리와 협조 발전’을 주제로 개최되었음.